



등록번호	의회사무국 ~ 3563
기안일자	2017. 6. 1.
등록일자	2017. 6. 1.
공개구분	대중인중개

의정담당	의회사무국장	의장			
하태원	X/rook				
협 조	이 전 의원				

2017년 연수구의회 공무 국외 연수 결과보고



연 수 구
의회사무국

海洋都市 文化・觀光 比較 見學 公務 國外旅行 歸國 報告書



 인천광역시 연수구
INCHEON METROPOLITAN YEONSU-GU

의회사무국

- 우리 연수구와 해양과 관련한 문화시설 및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미국서부의 도시들을 방문 해양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공유하여 접목,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아울러 해양도시에 걸맞는 연수구가 갖고 있는 인천대교 및 신항과 관련하여 접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통해 역동적인 인천의 연수구를 되새겨 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I

방 문 목 적

○ 광활한 미국 서부, 특히 해양도시 San Francisco가 있는 CALIFORNIA주와,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NEVADA주, 죽기전에 한번은 가 봐야 할 광활한 Grand Canyon이 있는 ARIZONA주 등 미국 3개 주의 문화·관광시설등의 견학을 통해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무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대교, 신항이 위치한 연수구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백지에 그려보면서 우리구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등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기대해 보면서 추진하게 되었음

Ⅱ

방 문 개 요

○ 방문기간 : 2017. 5. 12(금) ~ 5. 20(토)

○ 방 문 지 : 미국 낭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스페인 풍의 몬테리아, 영화산업의 중심지 로스엔젤레스, 물류·교통·군사 도시인 바스토우 미국 네바다주 사막지대인 라폴린, IT산업의 메카 실리콘벨리, 광활한 그랜드캐년, 모르몬교(Mormonism)의 고향 솔트레이크, 리틀라스베이거스인 캐넌, 관광의 도시인 라스베이거스, 천연자원이 풍부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 방문내용

- 해양도시의 관련시설 및 자원
- 관광도시의 이미지 및 규모
- 관광자원의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 맞춤형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

○ 방 문 자 : 총 6명

번 호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	의회사무국	운영위원장	이 강 구	
2	의회사무국	자치도시위원장	박 현 주	
3	의회사무국	기획복지위원장	정 지 열	
4	의회사무국	자치도시의원	김 준 식	
5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 병 삼	
6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 진	

○ 주요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내 용	비 고
5.12(금) 1일차	인 천	16:35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샌프란시스코 공항 ※비행시간 : 12시간 30분 / 시차 -17시간 샌프란시스코→Redwood city→몬테리아→로스바노스	oz0212
5.13(토) 2일차	헐리우드 로스엔젤레스		로스바노스→로스엔젤레스→헐리우드투어 헐리우드 명성의거리 투어, 유니버설스튜디오 견학	
5.14(일) 3일차	바스토우 라플린		로스엔젤레스→ 바스토우→라플린→캐넌	
5.15(월) 4일차	Grand Canyon		라플린→그랜드캐넌→호스슈벤드→서부영화의 도시 캐넌	
5.16(화) 5일차	캐넌 브라이스캐넌 자이언트캐넌 라스베이거스		관광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르네브쇼 관람을 통한 문화관광의 중요성 제고 도시경관의 중요성과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사례 탐구	
5.17(수) 6일차	라스베이거스 바스토우		군사·물류·교통의 도시 바스토우→모하비사막베이커스필드→건포도의 고향 프레스노	
5.18(목) 7일차	San Francisco		Fresno→Yosemite→Golden Gate Bridge(금문교) 피셔맨스워프(pier39), 샌프란시스코관람(해양관람선)	
5.19(금) 8일차	인 천		샌프란시스코공항 12:40분 출발→인천공항 5.20(토) 17:00 도착	

Ⅲ

미국서부현황

○ 미국서부지도 및 현황



○ 미국 캘리포니아주 현황

캘리포니아주

요약 미국 서부, 태평양에 면한 주.

샌디에이고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항구도시이다. 이 곳은 미국 해군의 주요한 군사항구이다.

주도(州都)는 새크라멘토이다. 50주 중 최대의 인구와 생산력을 자랑하는 주이다. 북쪽은 오리건주(州), 동쪽은 네바다·애리조나주(州)에 접하고, 남쪽은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며, 서쪽은

태평양에 면한다. 면적은 한반도 총면적의 2배에 가깝고, 미국 내에서는 텍사스에 이어 2번째로 넓은 주이다.

지형은 남북으로 뻗은 산지와 그 사이에 끼여 있는 평지군으로 그 주체가 형성된다. 주의 동쪽에 시에라네바다산맥이 뻗고, 그 중앙에 있는 휘트니산(4,418m)은 알래스카주(州)를 제외한 미국 내의 최고봉을 이룬다. 그 밖에 산지에는 새스타산(4,317m)·래슨피크(3,187m) 등의 높은 화산이 솟아 있다. 해안 연변을 따라 코스트(해안)산맥(코스트레인지스)이 뻗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북쪽에서 시에라네바다산맥과 합쳐진다.

그 두 산맥 사이에 펼쳐진 평야가 캘리포니아 계곡으로 북쪽에서 새크라멘토강(江)이, 남쪽에서 샌와킨강(江)이 흘러들어 중앙부에서 합류해서 서쪽으로 흘러 샌프란시스코만(灣)으로 들어간다. 콜로라도강(江)은 주의 남동부에서 애리조나주와 경계를 이루면서 멕시코령으로 들어가 캘리포니아만(灣)으로 흘러든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만을 형성하는 저지대는 북서쪽으로 이어져서 캘리포니아주(州) 남부에서 임피리얼계곡의 저지가 되는데, 그 대부분이 해면보다 낮다. 코스트산맥에는 단층지형이 발달하여 태평양의 해안선은 단조롭다. 다만 골든게이트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샌프란시스코만과 샌파블로만,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 샌타바르바라제도가 있어 그 단조로움을 깨뜨리고 있을 뿐이다. 한편, 휘트니산 남동쪽의 시에라네바다산맥 동쪽 기슭에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땅인 해면하 86 m의 사막계곡(砂漠溪谷) 데스밸리(죽음의 계곡)가 있어,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최고 지점과 최저지점을 함께 안고 있는 주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크게 4개의 기후구로 나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중부에서 남부에 걸친 해안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산과 들의 초목이 시들지만 겨울에는 반대로

앞이 무성하다. 북부는 대부분 서안해양성기후로 삼림이 많다. 남부의 내륙부는 사막기후로 모하비사막 ·데스밸리 등의 건조지역이 펼쳐지고 선인장이 많이 자란다.

태평양 연안 앞바다에는 캘리포니아 한류(寒流)가 흐르기 때문에 해안부는 전반적으로 연중 쾌적한 기후의 혜택을 입고 있으나, 북부에서는 비교적 저온이면서 안개가 많이 끼고, 내륙부의 저지는 전반적으로 몹시 무덥다.

1542년 에스파냐인(人) 후안 카브리요가 멕시코에서 배를 타고 샌디에이고에 도착하여 다시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탐험하였다. 영국인 F.드레이크는 1579년 샌프란시스코만 부근에 도착하였다. 1769년 최초의 식민지를 샌디에이고 부근에 건설하였고, 1812년에는 러시아의 모피 상인들이 남하하였다. 캘리포니아는 멕시코가 독립하게 되면서 그 지배하에 놓였으나, 1846~47년에 있었던 미국·멕시코전쟁의 결과, 48년에 미국에 할양되고, 50년에 31번째의 주가 되었다. 1841년부터 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48년 콜로마에서 금이 발견된 후 이주자가 급증하였다. 혜택을 받은 기후·산업조건에 힘입어 인구증가가 현저하며, 1960년까지 미국 제1위의 인구를 가졌던 뉴욕주를 물리치고 70년의 센서스에서는 1위가 되었으며, 그 후에도 인구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개발의 실마리가 되었던 금광 외에 은·구리·납·수은 그 밖의 각종 광산물이 있으나, 로스앤젤레스 부근을 중심으로 한 석유가 가장 중요하여 주의 광업수입의 1/2을 차지한다. 광업과 함께 초기의 주종산업이었던 목양(牧羊)은 농업의 현저한 발달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현재 농업 수입면으로 보면 캘리포니아는 미국 제1의 농업주(農業州)이다. 남부의 지중해성기후 지역에서는 각지에 근대적인

관개시설을 설치하여 과수와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 포도·복숭아·서양배·레몬·살구 등의 과일류와 사탕무의 생산은 미국 제1위이고, 오렌지는 플로리다에 이어 제2위, 목화와 감자는 제3위이다. 어획량은 알래스카에 이어 제2위이며 참치 외에 70종의 어패류가 어획된다. 또 닭·칠면조 사육도 제1위를 차지하여 목축 소득면에서도 아이오와에 이어 미국 제2위이다. 낙농과 밀·벼의 재배도 성하고, 소나무·전나무 등 임산자원이 풍부하여 북부와 시에라네바다산맥의 서쪽 기슭이 임업지를 이룬다.

공업면에서도 근래 공업화가 급속한 진전을 보였으며, 특히 항공 우주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업총소득도 뉴욕주에 이어 미국 제2위이다. 그 중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항공기·미사일 공업이 가장 활발하고, 각지에 냉동·통조림 공업도 발달하였다. 그 밖에 전기기계기구·전자기기·금속제품·정유 등의 공업도 성하다.

광업면에서는 1848년의 골드러시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현재 그 주체는 석유로 옮겨져, 텍사스·루이지애나주에 이어 미국내 제3위의 생산량을 올리고 있다. 수은·모래·자갈은 미국 제1위이며, 금의 생산량도 많다. 그 밖에 시멘트·석면·은·납 등의 생산도 적지 않다.

육상 교통면에서는 철도·자동차 도로가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부와 남북으로 뻗어 있고, 항공로는 아시아·남북아메리카 각지로 통하며, 국내교통의 서단(西端)인 동시에 아시아와의 교통 문호(門戶) 구실을 한다. 또,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 등 양항(良港)이 많고 산물도 풍부하여 무역도 활발하다.

캘리포니아는 원래 멕시코령(領)이었기 때문에 에스파냐계의 문화가 남아 있고 멕시코인 이주자도 많다. 또 한국인·일본인

·중국인 등 동양계 인종도 많고 한국·일본·중국 등의 요리도 보급되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리틀도쿄 등이 유명하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흑인들의 대도시 유입도 눈에 띄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후·생활환경의 혜택을 입어 퇴직 후의 정주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샌타모니카·롱비치·할리우드 등의 휴양지·고급주택지가 발달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이다. 학술면에서는 캘리포니아대학 등 170여 개의 대학이 있어 대학수는 미국 제 2위이며, 연구소·박물관도 많아 문화적 수준이 높은 주로 꼽힌다. 관광면으로도 산지에 협곡미(峽谷美)를 자랑하는 요세미테·킹스캐니언·세쿼이아 등의 국립공원 및 래슨화산국립공원이 있고, 어린이의 낙원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와 샌디에이고의 동물원·수족관(水族館) 등은 항상 관광객으로 붐빈다. 남(南)캘리포니아는 해양미(海洋美)로 알려졌으며 산타캐타리나섬·샌타바르바라제도 등지도 휴양지로 유명하다.



○ 미국 네바다주 현황

네바다 주

요약 미국 서부에 있는 주(州).

주도(州 都)는 카슨시티이다. 주의 대부분은 대분지(大 盆 地)에 속하며, 고원과 산지로 이루어진다. 서쪽으로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이르고, 남동쪽은 콜로라도 강(江) 유역에 속하며, 콜로라도 강은 애리조나 주(州)와의 경계를 이룬다. 주의 대부분이 험볼트 강 등 내륙수계에 속하며, 대륙횡단철도와 자동차도로도 발달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이 강수량 500 mm 이하의 스텝기후이나, 남부는 사막기후로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을 이룬다. 그러나 산지에는 삼림도 있고, 겨울에는

눈이 많아 스키가 성행한다.

백인에 의한 개척은 182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인디언과의 교역이 주가 되었다. 아메리카-멕시코 전쟁 후 미국령이 되어 1864년에 36번째의 주로 편입되었다. 최대산업은 관광산업으로, 네바다 주는 거의 모든 관광·오락에 대해 장려하며, 각지에 인공적인 관광·오락시설이 발달되었다. 라스베이거스와 리노가 유명하며, 도박과 이혼이 수월한 곳으로 알려졌다. 도박에 대한 세금은 주의 중요한 재원(財源)이 된다. 자연미로 알려진 타호 호(湖)와, 후버 댐·미드 호·국립오락지역·고스트타운(ghost town) 등 관광지로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광산물도 풍부하여 구리·텅스텐·금 등의 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정밀기계를 비롯하여 각종 공업이 발달되었다. 또한 주의 대부분은 육우(肉牛)와 양(羊)의 방목지로 되어 있다



○ 미국 유타주 현황

유타주

요약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

미국 유타주. 이곳은 3억 5천만년 전부터 바닷물이 들락거리다 말라 수 백 미터 두께의 소금 층을 형성했고, 그 위를 또 수 천만년 동안 흙먼지가 최고 2km 두께로 쌓이면서 그 무게에 눌린 소금 층이 지상으로 튀어 오르고 거기에 다시 흙 먼지가 수 천만년 쌓인 뒤 비 바람을 맞아 오늘의 기묘한 모양을 이루었다.

주도(州 都)는 솔트레이크시티이다. 와이오밍·콜로라도·애리조나·네바다·아이다호 등의 주에 둘러싸여 있다. 서부지방에는 그레이트베이슨(大 盆 地), 중부는 워새치산맥, 동부는 콜로라도 고원에 속하며 고원과 산지가 많다. 그레이트베이슨의 하천들은 모두 내륙하천으로 바다로는 통하지 않는다. 북부에는 염호(鹽 湖)로 알려진 그레이트솔트호가 있고, 그 서쪽에는 세계 최대급의 염류(鹽 類) 사막인 그레이트솔트레이크 사막이 있다. 염호에서 사막까지 일대는 예전에 보네빌이라고 하였던 거대한 호수였는데 건조기후 때문에 물이 말라 현재와 같이 되었다.

주 최대의 산업은 공업이며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미사일·로켓 엔진·항공기 부품·기계·금속·석유화학 등의 공업이 활발하다. 광업도 성하여 구리를 중심으로 금·은·아스팔트·몰리브덴·마그네슘·납·우라늄·바나듐·칼리염(鹽) 등이 생산된다. 빙검 계곡은 미국 최대의 구리 생산지이며 석유의 매장량도 많다. 농목업도 중요한 산업으로 면양·칠면조가 많이 사육된다.

주요농작물은 살구·버찌·보리·사탕무·밀·감자 등이다. 브라이스 캐니언·캐니언랜즈·자이언 등 3개의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대자연의 혜택으로 오락·스포츠 등 휴양지로서도 중요시된다. 1847년 4월 모르몬교도가 동부에서 들어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는데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를 중심으로 주로 북부에서 대규모의 관개농업에 성공하였다. 1896년 미국의 45번째 주가 되었다. 모르몬교도가 주 인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1983년 9월 30일 한국의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IV

방문도시 개요 및 발전방안 모색

○ San Francisco(샌프란시스코)

미국서부의 중심도시이자 자유의도시 평화·항구·낭만·안개·야경·언덕·히피문화의 도시 등 모든 수식어가 다 붙어도 모자라는 도시 San Francisco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시차로 인한 한국시간보다 17시간 前이라는 것 때문에 타임머신을 타고 일정을 시작하면서 광활한 미국 서부의 땅을 밟았다든 것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설렘도 잠시 바쁜 방문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1963년 폐쇄된 과거 알 카포네 같은 흉악범이 수용된 천하 요새같은 알카트라즈(Alcatraz Island)섬이 보이는데 우측엔 금문교가 한 눈에 들어오고 섬 앞의 해안을 따라 전경이 즐비한데 이곳이 유명한 피셔멘스 와프(Fisherman's Wharf) 거리다

또한 1930년대 손 코넬 리가 가석방되어 호텔에서 샤워를

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반드시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만약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시면)

You're gonna meet some gentle people there

(좋은 사람들을 만날거예요) 라는 노래가사를 생각해 하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다

우리 연수구의 해양도시도 이러한 모습과 관광자원을 점진적
으로 개발 관광자원화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샌프란시스코 전차모습



샌프란시스코 피셔멘스 와프 거리



샌프란시스코 해안전경 모습



금문교 현황 안내표지판

○ Los Banos(로스 바노스)와 Los Angeles(로스엔젤레스)

분노의 포도 영화장면으로도 유명한 로스바노스로 가는 도중 태평양을 바라보는 해안가에 위치한 스페인식의 별장들이 즐바한 페이블비치골프링크를 관람하면서 우리 연수구도 잭 니콜라우스의 골프장을 좀더 세계적인 골프장으로 거듭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로스엔젤레스를 투어하는 일정을 마쳤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마릴린몬노와 함께



영화산업의 중심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



태평양에 서식하는 새 및 물개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페이블비치 골프장

로스앤젤레스

예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태평양에 면한 도시.

뉴욕에 다음가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이며 주변의 패서디나·컬버시티·잉글우드·산타 모니카·롱비치 등의 위성도시를 포함한 인구는 700만을 넘어서 뉴욕 지역에 이어 미국 제2의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시가지는 북부의 산 가브리엘 산맥의 남쪽 사면에서 서부와 남부 해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펼쳐져 있다. 가로(街路)는 대개 정연한 바둑판 모양을 이루나, 시가지의 급속한 확장에 따르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오래된 시가지는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인디언의 촌락이 산재하던 이곳에 백인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1781년에 주민 44명으로 된 에스파냐 사람의 거리가 탄생했고, 에스파냐·멕시코의 지배에 있는 동안 이 거리는 서서히 동·서·남으로 확장되어 방목지역의 중심상업지로 발전했다. 1846년 미국 해군이 점령해 미국령이 된 당시의 인구는 1천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농업의 발전을 발판으로 착실한 도시 발전이 시작되었다. 1891년의 석유분출을 계기로 20세기부터 시작된 대규모의 유전개발, 1914년의 파나마운하의 개통과 산 페드로 만(灣)의 축항에 따른 해운의 발달,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의 발전, 교통로 확충에 따른 관광·휴양객의 증가, 감귤류의 재배와 관련 가공업의 발달, 기계·화학·항공기·자동차 산업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예로부터 캘리포니아는 전지역에 걸쳐 일반적으로 농업이 경제의 주체가 되어왔고, 따라서 각종 곡물·축산물·채소류 및 오렌지·레몬을 중심으로 한 감귤류의 시장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속한 공업화의 추세로 농업의 쇠퇴가 현저하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공업원료 획득이 쉽고 1936년 완공된 후버댐의 수자원을 이용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정밀기계·섬유·금속·석유관련산업·화학·식품가공·제강·인쇄 등 각종 공업에 더하여 컴퓨터·통신기·전자산업 및 우주항공산업이 중요한 경제적 지주(支柱)이다. 각종 공업제품과 석유·농산물 등은 산 페드로 만의 로스앤젤레스항을 통해 선적되며, 특히 남아메리카 및 태평양 경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수출입액의 경우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의 액수를 합치면, 태평양연안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능가하여 가장 많다. 로스앤젤레스항은 어항·군항으로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또 전국에서 철도·하이웨이·항공로가 집중하여, 육상·항공교통에 있어서도 태평양연안 남부지역의 중심지이다. 로스앤젤레스는 아름다운 해안풍경을 포함한 풍부한 자연의 경승지로서 관광지로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오락·행락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을 비롯한 약 10개의 주요 대학 및 자연역사 박물관·미술박물관·경기장 등이 있고, 뮤직센터를 본거지로 하는 로스앤젤레스필하모니관현악단이 있다.

태평양의 현관 구실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중국·일본·필리핀 등 동양계 이민들이 많고, 과거 에스파냐·멕시코령이었기 때문에 멕시코인·흑인의 인구 비율도 높아 인종문제에 기인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대책의 하나로, 시가지 재개발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며 ‘우정의 종(鐘)’을 기증한 바 있다.

북서부의 할리우드·비벌리힐스에는 광대한 영화 스튜디오가 있고, 영화배우와 유명인사들의 고급 주택가로도 유명하며, 영화산업이 쇠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할리우드의 선셋 거리·할리우드 거리 등의 환락가는 여전히 몰락하지 않고 있다.

시(市) 북동부의 월슨산(1,740m)에는 지름 254 cm의 천체망원경으로 유명한 월슨산천문대가 있고, 남쪽 40 km 지점의 애너하임에는 디즈니랜드가 있다. 또한 1984년에는 제23회 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1967년 12월 한국의 부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 바스토우(Barstow)와 라플린

바스토우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 있는 도시이다.

북서쪽으로 657km 거리에 주도인 새크라멘토가, 남쪽으로 114 km 떨어진 곳에 카운티의 행정중심지인 샌 버나디노(San Bernardino)가 있다. 모하비 사막 지역에 있으며, 리버사이드-샌버나디오 메트로폴리탄 지역(Riverside-San Bernardino metropolitan area)에 속하는 도시이다. 바스토우-대갯 공항(Barstow-Daggett Airport)이 있으며, 주변에 U.S.고속도로 15번, 40번과 주립도로 58번, 247번 등이 지나는 교통 중심지이다.

1947년에 도시가 공식 설립되었다. 1840년대 몰몬교가 부흥했던 지역이었으며, 골드러시 시대인 1860년대 동쪽 산맥 지역에서 금·은 광산이 개발되어 광부들이 모여들었다. 철도와 도로가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물류·유통업이 발달했다. 1940년대에는 미국 해병대 바스트 물류기지(Marine Corps Logistics Base Barstow)와 육군 어윈 요새 국립훈련센터(Ft. Irwin National Training Center) 등이 설립되었다. 로스앤젤레스 권역에서 모하비사막·라스베이거스 등의 지역으로 여행하는 중간 기점이 되는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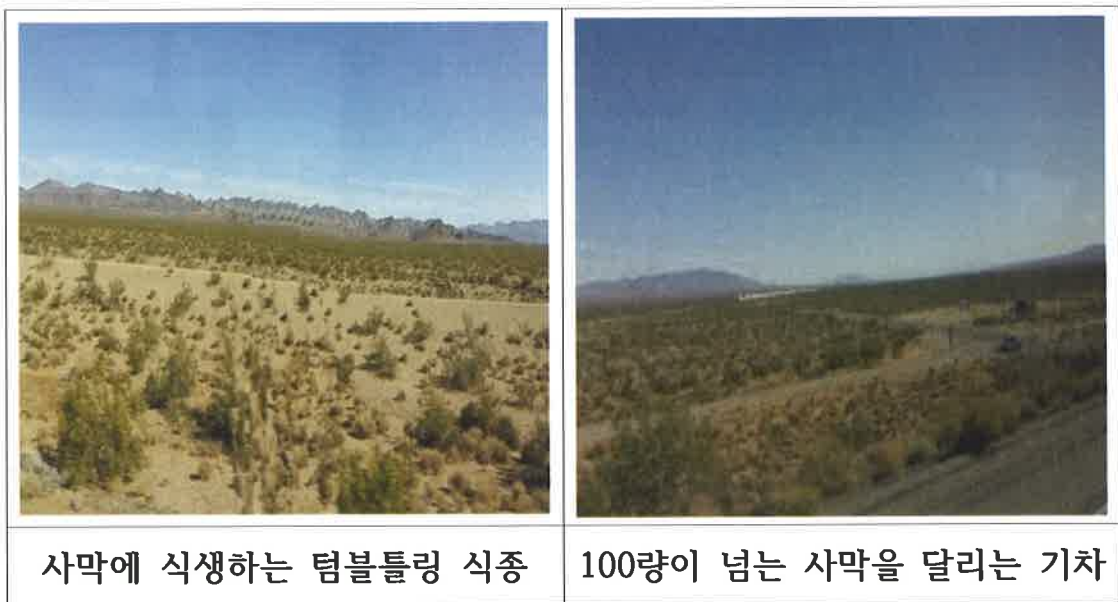
주요 명소로는 하비 하우스(Harvey House)의 호텔과 창고, 바스토우역(Barstow Station), 모하비 리버밸리 박물관(Mojave River Valley Museum), 서부 아메리카 철도 박물관(Western America Rail Museum), 사막 탐험 센터(Desert Discovery Center), 텐저 아울렛(Tanger Outlet Stores), 바스토우 아울렛(Barstow Outlet Store) 등이 있다.

물류도시, 사막지대, 철도기지국, 해병대훈련소, 교통도시인 바스토우에는 에드워드 공군기지도 있는 사막의 도시 한가운데 대형 아울렛 옛 바스토우 있는 점도 매우 특이한 지역이며 기차가 100량이 넘는 모습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한 장면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길게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모습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고도 남음이 없었다.

사막지대의 모습은 뿌리에 흑이 있는 덤불틀링이라는 수목류만 즐비하고 식생하고 있었으며, 모하비사막이라는 곳은 원래 은광이 발달하다가 멕시코의 은이 저렴하게 유입되는 바람에 폐광이 되고 거기에는 회토류라는 희소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향후 자원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이라는 점에서 새삼 부럽기도 하였다. 덤불틀링의 DNA분석결과 해초류의 성분과 매우

일치하는 점을 볼 때 이 곳이 바다가 융기되어서 조성된 지역이라는 것이 새삼 놀라울 뿐이었다.

우리 연수구도 이러한 자원은 비록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히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항만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도시를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랜드캐년(Grand Canyon) 유타주의주도인 솔트레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그랜드 캐년은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4억년이 넘는 세월동안 콜로라도 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으로 446km에 걸쳐 펼쳐져 있다는 놀라움을 뒤로하고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미대륙의 광활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세계적 명성의 관광지라는 것이 부럽기만 하면서 투어를 시작하고 또한 호스슈밴드라는 콜로라도 강의 숨겨진 비경과 또다른 매력을 만끽하면서

미국의 인디언에 대한 숨겨진 슬픈역사를 되새겨 본다.

과연 이지역은 우주인지 화성인지 구분이 가지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보면서, 원래 이 지역은 나바호 인디언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래의 주인이 바뀐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도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기회로 삼아 볼 까 한다. 또한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는 200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김동성이 안톤오노라는 미국계 일본인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슬픈 지역임과 동시에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소금호수의 지역으로서도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의 자연도 가장 바람직하게 관리 유지하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랜드캐년의 웅대한 배경으로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표지판에서



Tusayanfire 소방서 방문 기념
촬영



특이한 하얀 소방차와 사용설명
청취

○ 브라이스·자이언트캐년과 라스베이거스(Las Vegas)

브라이스캐년은 유타주 남부 중앙부에 위치하며,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거대한 계단식 원형분지로 일출과 일몰 때면 핑크색 바위 봉우리 수백만 개가 빛을 발하는 모습이 장관인 지역이며 자이언캐년은 3대 캐년 중에서 특히 남성스러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인 동시에 세계적 관광지이기도 하다, 국립공원 입구에서부터 싸늘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은 맑은 공기탓일까 하면서 장엄한 지역을 새삼 몸으로 느끼게 된다. 마치 산과 바위가 신이 빚어 놓은 것 같은 신비함을 느끼게 함고 동시에 캐년을 관통하는 터널은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형 토목공사의 하나로써 화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사람들이 작업을 했다는 것에 새삼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지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불현 듯 갖게 된다.

라스베이거스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미국 최대의 관광도시 중 하나이며 네바다주 동남부 사막에 자리잡고 있으며, 도박에 의한 수입이 많기 때문에 호텔, 음식, 쇼등이 발달한 지역이며 특히 르네브쇼(RE REVE)와 High Roller는 이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절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야경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수구도 이러한 쇼문화를 체계화 함고 동시에 송도국제 도시에 하이롤러와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브라이스캐년의 장엄한 전경



분수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전경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70m의하이롤러

○ 베이커스필드와 프레즈노시 및 요세미티 국립공원

켈리코 은광촌은 우리의 민속 박물관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은 광맥이 지금도 푸르스름한 빛을 띄우며 산 에 띠를 두르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아주 규모가 큰 은 광맥이 발견 되면서 이곳은 폐광으로 몰락하고만다. 한 철 흥청 흥청 했던 광산에 하나 둘 사람들은 떠나고 텅 비어있는 광산.

그래서 유령의 은 광촌이라 했을까?

그리고 이곳을 지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관광 할 계획인데 사막으로 장시간 버스가 달리다보니 잠깐 케리코 은 광촌을 관광 하는 것같은 감이 든다.

그래도 사막 한켠에 위치한 케리코 광산에는 옛날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카우보이 복장의 보안관이 관광객을 위한 사진 포-즈도 잡아준다. 어느 재벌이 이곳 은 광촌을 매입하여 민속 박물관 형식으로 복원하여 자라나는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가르침의 의미도 여기에는 있었다.

이곳을 지나면서 멀리 사막의 복판에 항공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유명한 모하비 사막의 중고 항공기 거래처라고 한다. 유대인 중고 항공기 판매자들이, 년중 강수량이 적어 항공기의 부식도 걱정을 안하고, 거대한 중고 민간 항공기 까지 전시 할 수 있는 광활한 땅이 어데 있을까? 연구 한던 끝에 최적지로 이곳을 선택하여 세계 각국의 수요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 한다고 한다.

사막한가운데 있는 에디슨사가 운영하는 최대풍력발전소의 전경을 보면서 새삼 대단한 축복받은 대륙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옛서부광산을 원형대로 보존시킨 관광명소인 켈리코 은광촌은 우리의 민속촌과 같은 느낌이었음 특히 프레즈노시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하와이 이민자 중 프레즈노로 이동 건포도의 효시인 이 고장에서 복숭아농장과 체리농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독립자금을 마련 지원했었다는 이국땅에서나마 독립의 꿈을 키워나갔다는 점을 다시한번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함



풍력발전소 전경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장엄한 모습



캘리포 은광촌의 전경과 서부시대 건축물



우리의 민속촌같은 카우보이와 함께

IV

방문도시를 통한 연수구의 발전과제

○ 우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 관광자원화

이번 방문도시중 미국서부의 캘리포니아와 같은 해양도시인 인천 연수구도 인천항과 잭니콜라우스골프장을 연계한 국제적 대회를 적극유치해 나감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화

행사등을 적극 유치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정책적인 방안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특히 신항과 인천연안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해양관람선을 건조 관광객을 유치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임

○ 해양도시여건을 적극비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해양도시에 걸맞는 계절적 문화,체육, 국제회의, 각종대회 등을 연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타워같은 랜드마크 등을 조성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음식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고유의 브랜드화 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송도국제도시의 건축물을 활용한 마이스 박람회 개최

우리나라의 대표 마이스 전시 박람회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OREA MICE EXPO,KME)가 2018~2022년까지 5년간 인천에서 열린다. 마이스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일컫는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1일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열린 공모에서 KME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인천시는 지역의 마이스 산업 인프라와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접근성,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심사 과정에서 높게 평가됐다. 한편 올해 KME행사는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연수구의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연수구도 문화쇼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